

## “새해엔 웃으면서 장사할 수 있었으면...”

■르포/ 2019년 마지막 제주시민속오일시장  
27일 장 쏘지만 김장재료 구매 손님·관광객만 ‘반짝’  
배춧값 ↑·감귤값 ↓... “경기 불황으로 한숨만 나와”

“올해는 힘들었지만, 내년엔 웃으면서 장사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난 27일 열린 올해 마지막 제주 시민속오일시장은 유례없는 가을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 기상 이변에 따른 농작물 피해로 채소와 과일의 소비가 줄어들어 상인들의 한숨을 더욱 짙게 했다.

특히 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서민들의 지갑도 예년과 달리 공풍 얼어붙어 겨울의 추위를 더했다.

이날 오일장에는 김장재료, 과일 등을 구매하러 온 손님과 먹거리를 즐기는 관광객들이 몇몇 보였다.

채소 상인 손은자(67)씨는 “올해는 농작물의 작황이 부진하고 생산량이 감소하는 바람에 가을배추, 무 등 김장 비용이 크게 올랐다”며 “비싼 배춧값은 손님들의 소비 부진으로 이어졌고 매출액이 작년보다 50% 떨어졌다”고 푸념했다.

이와 “손님들은 배춧값이 올라 마트에서 비교적 값싼 절임배추를 사서 김장을 담근다고 한다”며 “예전에는 온 식구들이 모여 김치를 담갔지만 요즘에는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들여 김치를 담그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시장을 둘러보니 배추 가격은 포기 당 5000원, 1방(3포기) 대 1

만2000원, 소 8000원~1만원이었다. 두 달 전보다 소폭 가격이 내려간 것이라고 상인들은 설명했다.

상인 정금순(66)씨는 “잇따른 태풍과 장마로 인한 피해로 농작물의 작황이 좋지 않다”며 “콩, 깨 등의 농작물은 수확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과일 상인 이해숙(58)씨는 “올해

는 감귤에 점박이가 생기고 새콤달콤한 맛이 덜해 잘 팔리지 않는다”며 “예년에 비해 감귤값이 많이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경기가 안좋아서 모두가 힘들다”며 “내년에는 시장이 활성화되어 장사가 지금보다 잘 됐으면 좋겠고, 손님도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시장을 찾은 김단비(32·노형동)씨는 “시장이 일반 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해 애용하고 있다”며 “직접 만져보고 살 수 있고, 마트는 흥정이 안 되지만 시장은 실거래를 해서 가격을 조금 더 깎을 수도 있다”고 말

했다. 김씨는 또 “물가는 오르는 것 같은데 직장인들의 월급 인상은 체감되지 않아 소비할 엄두가 안 난다”며 “내가 하나라도 덜 사고 덜 먹어야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이 더 안쓰는 것 같다”고 애기했다.

김다에(26·일도2동)씨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자신들의 수준에 맞게 소비를 하는 추세”라며 “지금 시장이 어르신에게 맞춰져 있다면 젊은 세대에게도 맞춰져서 저렴한 가격에 특별한 먹거리, 식품들을 판매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섭기자 kks@ihalla.com



27일 올해 마지막 오일장이 열린 제주시민속오일장에는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찾아 모처럼 활기찬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김희만기자

## “날마다 해 솟는 성산서 새해 맞으세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사흘간 일출봉서 제27회 성산일출축제

이번 새해에도 성산일출봉에서 해맞이 행사가 열린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3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성산일출봉 일원에서 ‘제27회 성산일출축제’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제주도가 주최하고 성산일출봉축제위원회(위원장 강경웅)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성산일출, 새 시대의 서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첫째 날인 30일에는 오전 10시 지질트레일 행사가 이뤄지며, 오후 1시부터는 성산을 관내 14개 마을 지역주민 300여명이 참여한 일출 희망 퍼레이드가 열린다.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3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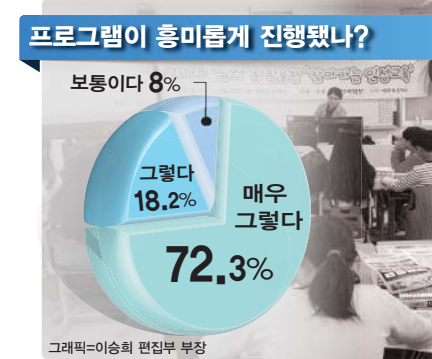
터는 이번 축제의 메인 행사들이 진행된다. 성산팍스타, 성산클럽데이, 개막식 및 축하공연(가수 왁스 양정원, 신혜, 구나운, 진시몬, 사우스카니발 등), 달집점화 및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폭죽놀이, 일출나이트, 일출시내마, 일출기원제, 일출봉 등반 및 바닷길 걷기, 무료 떡국 나눔 등 다양한 행사가 무박 2일간 계속된다.

행사 현장에는 세계유산본부 직원 20명, 소방인력 80명, 소방차 2대, 구급대, 경찰 30명 등이 배치돼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1월 1일 일출봉 등반객을 130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등반권은 이날 오전 3시30분부터 배부할 예정”이라며 “정상으로 가지 못하는 방문객은 광치기 해안에서 일출을 맞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 뉴스 활용 인성교육 “흥미로워”

본보, 도내 초·중 7개교 대상 찾아가는 교육  
설문조사 결과 호응... 87% “수업 내용 도움”



‘눈높이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묻는 ‘수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90.7%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 65.5%, ‘그렇다’ 25.2%’고 답했다. ‘보통’이라는 응답률은 8.3%였으며, ‘그렇지 않다’고 평가한 응답률은 1%에 불과했다.

더불어 응답자의 86.5%가 “수업 내용이 내게 도움이 됐다”며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률이 64%, ‘그렇다’가 22.5%, ‘보통이다’가 11%였다.

또 83.1%가 “다음에도 이런 수업에 참여하고 싶다(‘매우 그렇다’ 66.8%, ‘그렇다’ 16.3%)”며 관심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수업 운영 시간(2시간)이 적정했느냐는 질문에 87.1%(‘매우 그렇다’ 66.2%, ‘그렇다’ 20.9%)가 ‘적당’했다고 답했다. ‘보통’이라는 응답률은 10.8%,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은 2.1%로 나타났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 새로운 ‘감귤 5개년 계획’ 나왔다

‘미래감귤산업 기본구상’ 발간  
60만t 생산·조수입 1조원 목표

2024년까지 진행되는 ‘감귤 5개년 계획’이 나왔다.

제주도는 최근 ‘미래감귤산업 기본구상’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책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감귤

재배지 변동예측 ▷과일 소비패턴 변화 ▷생산·유통·정책분야 목표 및 발전대책 ▷감귤의 기원과 역사 등이 수록됐다.

이 책에 따르면 제주도는 2024년까지 감귤 조수입 1조원(지난해 9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배면적 20만ha·시설

면적 5000ha 등 총 20만5000ha에서 60만t의 감귤을 생산하고, 이 가운데 750ha는 원지정비와 품종갱신 등 전 문단지로 탈바꿈시켜 평균당도 11브릭스의 고품질 감귤을 생산키로 했다. 또한 현재 감귤 품종 94%가 일본산인 점을 감안해 30종의 국산품종을 개발하고, 무병보 공급체제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가 고령화에 따라 원스텝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영농 자

동화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스마트케어팜’도 도입한다.

또 당도선별을 강화하기 위해 광센서 선별을 53개소에서 63개소로 늘리고, 산지거래율을 1% 미만에서 10%(6000t)까지 증가시키기로 했다. 자생력 확보 차원에서는 자조금을 40억원(연 1억원 적립) 규모로 조성해 농가 가입률을 현재의 61%에서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송은범기자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정보” "아맹 초자봐도 어실땀"

### 제주도 공공구매 지원단

# ☎ 064-723-4111

공무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사전마심!!!

매칭

플젠마심!!

사회적경제기업

**제주도 공공구매 지원단은?**  
제주도와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4개조직이 연대하여 공공구매 활성화 위탁사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제품을 소개하고, 구매담당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  
세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JEJU SOCIAL ECONOMY CENTER

**공공구매 인기 업종**

# 사무용품, A4용지, 프린트 잉크, 사무기기 임대  
# 인쇄, 판촉물, 디자인 # 홍보영상제작, 캐릭터 개발, 애니메이션 제작  
# 가공·신선식품, 케이터링, 도시락 # 행사 기획, 전시, 세미나, 축제